

# 학교폭력의 현실과 대처방안(I)

김 장 영\* · 양 진 건\*\*

## 〈 목 차 〉

- |                  |               |
|------------------|---------------|
| I. 서 론           | 5. 학교폭력의 중층성  |
| II. 본 론          | 6. 학교폭력의 발생원인 |
| 1.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  | III. 결 론      |
| 2. 학교폭력의 실태와 사례  | 참고문헌          |
| 3. 학교폭력의 특징 및 경향 | Abstract      |
| 4. 학교폭력의 영향요인    |               |

## I. 서 론

최근 학생문제는 다양하고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교폭력은 많은 청소년과 가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전세계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 나라 가운데 미국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실정으로 미국의 청소년 인구가 전 인구의 10% 정도 인데 반해, 청소년 폭력범죄에 의해 희생되는 청소년의 수는 무려 25%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oone, 1994). 또한 1984년-1993년 사이 살인으로 체포된 청소년의 수는 무려 168%, 흉기를 사용한 폭력사건은 128%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Children's Defense Fund, 1995).

이러한 미국의 예는 한국의 경우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을 만한 내용임이 분명하다. 미국의 예를 참고로 할 때 한국에서도 앞으로 더욱 청소년 폭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추측은 명약관화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학교폭력은 청소년 개인 뿐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문제이며 이에 대한 예방

\* 제주대 사범대 부속중 교사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직과 교수

및 대처방안 또한 통합적 시각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이다. 학교폭력은 학교 주변의 폭력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학교폭력은 또한 사회의 폭력문화와도 연결된다. 더욱이 학교 및 학교주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문제는 폭력의 심각성은 물론 폭력의 피해자 및 가해자가 모두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다른 무엇보다 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연구자의 관심을 끄는 사안은 교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교사들은 그것을 어떻게 중재하는가 하는 교사중재 전략의 문제이다. 교사중재 전략이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교사가 어떻게 개입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교사개입 방식의 개념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학교폭력의 실태와 특징을 살펴보는 것으로 한정하고 후속작업인 학교폭력의 현실과 대처방안(Ⅱ)에서는 교사의 중재전략 및 과정을 학교폭력문제와 관련하여 제시함으로써 학교폭력 전반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Ⅱ. 본 론

### 1.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

학교폭력이란 가해자나 피해자 또는 발생장소 등에 있어 학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폭력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그 주체나 대상이 모두 청소년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여기서 말하는 폭력행위란 강제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여러 유형의 범죄로서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 유인하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학교폭력이라는 용어가 교육계 일반에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대신 “청소년 폭력”이라고 불리기를 주문하고 있지만, 사실 학교폭력은 이미 학술·사회적 용어로 정착되고 있는 형편이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일본의 오끼하라 유타카는 그 유형을 ‘중증형(重症型)’, ‘중증형(中症型)’, ‘경증형(輕症型)’, ‘무증형(無症型)’의 4대 유형으로 나눈다.

중증형(重症型)이란 학교 폭력의 3대 요소인 대교사폭력(對教師暴力), 기물파괴폭력(器物破壞暴力), 학생간 폭력(學生間暴力)의 모든 것이 현저하게 다발하는 현상을 이른다.

90년대 대 교사 폭력 전수만 해도 연간 미국은 10만건, 영국은 1만건, 일본은 2천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영국, 핀란드, 미국, 일본, 중앙아프리카 등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이 유형의 국가들은 경찰을 교문에 배치한다던가 학교폭력 특별위원회를 둔다던가 하는 등의 강력한 대책을 구사하고 있다.

중증형은 기물 파괴 폭력과 학생간 폭력이 다발하고 있는 형이며, 대 교사 폭력은 비교적 적은 것

이 그 특징이다. 뚜렷한 이유 없이 고가의 재산을 파괴하고, 성폭력까지 수시로 일삼는 학생 폭력 형태를 이르는 말이다.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캐나다 등 51개국 이 유형에 해당되는 국가로 꼽힌다. 세계적으로 이 유형의 국가가 가장 많다. 이 나라들은 그 대책으로 학생 위주의 교육 개혁을 서두르고, 학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교원 조합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가 단결하여 등·하교 지도를 하는 등 실천 가능한 민간 차원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증형은 주로 학생 폭력에 한정되어 있고, 대 교사 폭력이나 기물 파괴 폭력이 거의 없는 형으로 한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벨기에, 모로코, 이집트 등 13개국 이 유형에 해당된다. 한국은 초기 단계인 경증형에 속한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보여 주고 있는 폭력 서클에 의한 학교 폭력은 그 유형을 찾아보기 힘든 파렴치한 사례이다.

## 2. 학교폭력의 실태와 사례

학교폭력의 전반적인 실태에 대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1999)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시사적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학생들의 피해율을 통해서 학교폭력의 실태를 살펴보았는데 우선 피해를 추정함에 있어, 폭력유형을 ① 위협 및 협박과 같은 '언어적 폭력', ② 따귀때리기 등을 비롯한 '신체적 폭행', 그리고 ③ 심리적 및 신체적 폭력을 수반한 '금품갈취', ④ 하기 싫은 일을 강제로 시키는 '괴롭힘' 등으로 나누고, 특히 ⑤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경험을 함께 살펴보았다.

조사 기간은 1995년 6월 -1996년 5월 사이로 학교주변에서 누군가(학교친구, 선배, 아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등)로부터 폭력을 당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전체 표본(1,919명)의 57%(1,095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여자보다 남자의 피해율이 2배가량 높고, 학교유형별로는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의 피해경험이 더 높다. 특히 남자중학생들의 피해율이 두드러져 약 75% 이상이 피해경험을 보고하였다.

〈표 1〉 학생들의 주요 폭력 피해율

내 용	전체 (1,919)	남자		여자	
		중(484)	고(495)	중(436)	고(504)
괴 롭 힘	23.1	33.3	29.3	17.2	12.3
금 품 갈 취	27.6	47.9	28.7	21.3	12.3
신 체 적 폭 력	40.8	56.0	57.8	26.4	21.8
언 어 적 폭 력	19.4	30.4	23.0	12.4	11.3

4 · 學生生活研究

내 용	전체 (1,919)	남자		여자	
		중(484)	고(495)	중(436)	고(504)
성 적 피 해	38.7	-	-	28.3	47.6
전체 폭력피해율*	1095(57.1)	364(75.2)	315(70.9)	398(45.4)	182(36.1)

\* 여기에서 "전체 폭력 피해"라고 하는 것은 놀림 및 욕설 등 상징적 언어폭력 및 성적인 피해를 제외하고, ① 괴롭힘, ② 금품 갈취, ③ 신체적 폭행(구타), ④ 위협(협박) 가운데에 서 어떠한 것이라도 피해를 당해본 적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폭력유형별로 구체적인 피해실태를 보면, 괴롭힘은 조사대상자의 23%, 금품피해는 28%, 신체적 폭행의 경우는 41%(이것은 단순싸움을 포함한 수치: 상해위험이 있는 심각한 폭행은 10%), 위협이나 협박은 19%. 여학생들의 성적 피해는 39%가 한 번 이상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금품피해는 주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 당하는 경우가 많고, 대체로 저녁(28%)이나 밤(19%) 사이에 '놀이 및 유흥장소(19%)' 또는 '학원, 독서실 등(16%)' 등에서 피해를 입는 경향이 많다. 반면, 괴롭힘과 신체적 폭행 및 위협이나 협박은 주로 '같은 학교 친구나 선배로부터 일과 시간대(오전8시-오후5시)에 교실내 및 학교주변 노상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여학생들이 당한 성적 피해는 주로 언어적 및 상징적 성희롱이나 가벼운 성추행 등 사소한 것이 대부분(전체의 30%)이지만, 심한 성추행 경험율도 그다지 적지 않았다(전체의 8%).

피해시 반응이나 자구노력은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상당히 달랐다. 피해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금품갈취'를 당했을 경우이고, 일상적인 대면관계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괴롭힘이든 금품갈취이든 가족이나 타인에게 알리는 비율이 매우 적었다.

즉 폭력피해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은 피해자 자신의 주변 생활관계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만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경우 자신의 생활과 인간관계에 일정한 부담 또는 관계악화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해결을 모색하지 못한다. 피해사실을 공개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대체로 '문제해결에 대한 회의'와 '보복의 두려움'을 꼽고 있었다. 이처럼 학교 폭력이 가장 심각해지는 상황은 친숙한 대면집단 내에서 구조화될 때라는 것을 시사한다.

참고적으로 제주도의 학교폭력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제주도의 학교폭력 실태

구분	금품피해학생수			폭행피해학생수			집단따돌림 가해학생수			성폭행피해학생수		
	중	고	계	중	고	계	중	고	계	중	고	계
97	4225	980	5205	1068	606	1674				0	0	
98	1805	798	2603	887	609	1496	34	30	64	1	1	2
99	1267	549	1816	613	462	1075	19	10	29	1	0	1

전체적으로 볼 때 제주도의 경우는 학교 밖에서 피해는 감소하고 있으나 학교 내에서 금품을 빼앗기거나 폭행을 당하는 학생들은 늘고 있다.(2000.1.13. 한라일보)

학교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보고는 본 연구를 위해 매우 시사적인 내용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최근에 제주도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사례 11가지를 중심으로 보고(김장영, 1999)한다.

사례(1) : 성폭력

1997. 9. 6 22:30 정00양은 중학교 3학년 때 반 친구들과 반창회를 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구좌읍 새화리와 하도리 경계인 소나무 숲에서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1998. 6. 18. 15:30 J교 교 양호실에서 자연분만, 양00교사와 김00교사가 S산부인과로 후송하여 입원치료 후 등교하여 1999년 2월 졸업함.

사례(2) : 기물 파손

1998. 4. 24. 09:40 흡연실 마련, 두발 자율화, 등교시간 연장, 수업 시간에 잠을 잘 수 있도록 요구하며 1교시 수업 중 한00군을 시작으로 2층 복도에서 유리창을 깨기 시작하여 24명 내외 학생이 집단으로 학교 유리창 110여장을 깨며 교사에게 반항하였음

사례 (3) : 집단 패싸움

1999. 10. 1. 09:00 S중학교 2학년1반 교실에서 송00, 김00, 한00, 양00, 이00, 오00 중 대표 송00양과 유00, 김00, 허00, 이00, 고00 중 대표 유00양이 세력다툼으로 인해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며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싸우다 교사에게 적발되어, 교사의 중재로 서로 사이 좋게 지낼 것을 약속

하고 서약서 쓰고 헤어짐

사례(4) : 절도

1998. 10. 1~10. 20까지 8회에 걸쳐 Y중 최00, 김00군, 전00군이 한천초등학교 정문에 세워둔 봉고 차에서 C.D플레이어(2회), 인화동 가정집에서 저금통에 들어있는 돈 25,000원, 시민회관 옆 가정집 담에 있는 운동화, 인화동 가정집에서 여자핸드백 속의 돈 400,000원, 신광초등학교 근처 가정집에서 50,000원 등 주로 금품을 훔쳐 서울로 가려다 공항에서 적발되어, 선생님의 인도로 학교에 와서 지도 받고 등교하였음

사례(5) : 음란물 소지

1999. 5. 3 09:10 E중학교 2학년3반 교실에서 최00군이 음란 디스켓을 학생들과 돌려보기 위해 학교에 가지고 왔다가 소지품 검사에서 2학년3반 담임선생님에게 적발이 되어 물건은 압수하여 보관중이며, 학생은 담임선생님의 지도를 받음.

사례(6) : 금품 갈취

1999. 9. 21 12:50 경 J중학교 2학년2반 교실에서 송00양이 같은 반 박00의 돈 10,000원, 김00의 돈 1,000원, 김00의 돈 100원을 본인들이 없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빼앗아 송00양이 친구 2명과 함께 한천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디스 담배를 1갑 사고, 17:10 경 근처에 있는 고래 고래노래방에서 돈을 썼음. 학생부 김00 교사가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상담한 후, 보호자가 피해 학생들에게 1999년 11월 4일 금품을 돌려줌

사례(7) : 폭력

1998. 4. 25 09:10 H고교 3학년 권00 학생이 음주하여 만취된 상태에서 1학년6반 교실에 들어가, 양00 여자 담임교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로60cm 세로35cm인 차량출입 금지 표지판으로 강00 여학생을 때렸으며, 박00 여학생을 발로 차고 손으로 때려 안경이 깨지고 얼굴을 다치게 했음. 그 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한 후 피해학생과 함께 집으로 가서 보호자에게 알리고 협조를 당부하였고, 권00군은 보호자를 학교에 오도록 하여 학생을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귀가 조치하였음

사례 (8) : 교사에 대한 폭력.

1998. 3. 19 5교시 P고교 1학년 교실에서 유00 교사가 수업 중 늦게 들어오는 김00 여학생에게, 종이 친 다음 들어오고 용의가 단정하지 못하다고 지도하자 선생님에게 반항하여, 선생님이 손바닥으

로 얼굴을 때리자 김00 여학생이 학생들 보는 앞에서 선생님을 손으로 때리며 머리를 잡아당겼음.

사례(9) : 구타

1999. 10. 23 22:10 D중 윤000 여학생(2년), D중 김00 여학생(2년), S중 이00 여학생(3년), J고교 1년 남학생이 D여중 김00, 김00를 인화 초등학교에서 구타함

사례(10) : 폭력

1999. 10. 23 22:00 일도동 인제 게임메니아 옆 공터에 D중 한00, 양00, 강00, 홍00, K중 이00, J중 고00, 황00, S중 고00, 박00, A중 강00, 강00, J중 김00이 모여, 아메리칸 콜라텍에서 생일 파티를 하고 있던 J중 고00, 한00군을 불러 이유 없이 집단 구타를 하고 철근으로 머리를 때려 상처가 나자, 싸움을 말리는 김00을 양00, 고00가 집 근처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서 쇠파이프로 구타하여 김00군이 순간 기억 상실증에 걸림.

사례(11) : 성희롱

1999. 7. 9 B중 1학년8반 정00군이 같은 반 여학생들의 얼굴, 가슴을 만지고 히프를 만지다 김00 담임 교사에게 적발되어 지도함.

사례(12) : 절도

1999. 10. 16 23:00 S중 정00, 이00, J중 김00, 김00군 4명은 제주도 용담2동 용진사우나 옆에 세워 둔 C.T백 오토바이 1대와 용화부락에서 오토바이2대를 훔쳐 타고 다니다 S중 이00가 영업용 택시(스텔라)와 접촉사고를 내어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주하였음.

### 3. 학교 폭력의 특징 및 경향

#### 1) 피해 비율의 증가와 장기화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1990)에서는 36.1%(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로 나타났고, 김준호 교수(1991)의 조사에서는 폭력범죄 피해비율이 36.1%, 재산범죄 피해비율이 42.5%, 어떤 폭력이라도 피해를 받은 비율이 58.3%로 집계되어 그 피해율이 해를 거듭 할수록 증가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40%이상의 피해자가 한 달에서 이년 이상의 장기적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전방화와 육체적 폭력 증가

금품갈취나 절도, 위협이나 협박은 교실 안, 학교 안, 학교주변 등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학원, 전자오락실, 길거리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금품갈취는 학교주변과 전자오락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 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장소가 잠재적 피해 대상지역에 해당된다.

가장 눈에 두드러진 피해는 육체적인 상처이며 정신적 피해는 폭력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복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불안, 등교거부, 정신과 치료, 자살시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 3) 가해자와 피해자의 동시성

학교폭력은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청소년으로 폭력의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은 생활공간에서 생활하고 있고, 일부 청소년은 폭력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특성을 지닌다.

실제로 충남도청소년상담실에서 95년 청소년 1,2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에게 자기보고를 하게 한 결과 남을 구타하거나 폭행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학생이 12.4%였고, 위협이나 협박은 11.4%, 성적놀림은 7.8%의 학생이 경험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 수치는 같은 행위의 피해율의 1/2이나 1/3 수준이긴 하지만, 중·고등학생의 10-20%정도가 남을 폭행, 협박, 성적 놀림 등을 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교내 집단적 행위

학교폭력은 단독으로보다는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집단성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강하다. 남학생의 평균 집단 가해자수는 2.78명인데 반해 여학생의 평균수는 4.01명이다. 그리고 가해 학생은 교내의 아는 학생인 경우가 많다.

## 5) 자구책 강구의 곤란

일부 청소년은 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교 가기를 싫어하거나(12.1%),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리고(7.9%) 있다. 또한 등·하교시 폭력에 대한 대비로 여러 사람이 함께 가거나(18.0%), 빼앗길 돈(life money) (8.5%)이나(김준호 외, 1992) 흥기(4.0%)를 가지고 다니기도 한다.

피해학생들은 대부분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무서워서 가만히 있거나 도망치는 것과 같은 소극적인 대응이 고작이고 대항, 항의, 소리지르기 등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폭력의 가해자는 대개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이고 몽둥이나 칼과 같은 흥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 4. 학교폭력의 영향요인

여기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주요 관심 중의 하나는 어떤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폭력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지,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특성을 지닌 학생들이 폭력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지에 관한 것이다. 학생들 내에서 형성되는 구조화된 피-가해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피해양상에 대한 파악뿐만 아니라 가해과정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가해 또는 피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적 및 사회 심리적 요인들을 각기 요약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참고로 살펴볼 때 1단계의 생활 환경적 요인들이 피해 및 가해여부를 설명하는 정도는 거의 비슷하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대동소이하다. 주변에 비행친구들과의 접촉이 많고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며, 교사나 부모로부터 폭력적인 훈육을 많이 경험할수록, 피해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가해자가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어린 남자청소년들에게서 가장 강하다. 즉 부모와 교사로부터 적절하게 훈육되지도 보호되지 못하고, 이들에 대해 긍정적인 유대를 잘 발달시키지 못하면, 비행환경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폭력 피해와 가해 가능성을 동시에 높여준다.

〈표 3〉 폭력 피해 및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구 분	폭 력 피 해			폭 력 가 해		
	step(1)	step(2)	step(3)	step(1)	step(2)	step(3)
성	-.24***	-.25***	-.25***	-.23***	-.12***	-.10***
학 교 유 형	-.13***	-.13***	-.12***	-.10***	-.11***	-.14***
결 손 여 부	.05*	.05*	.05*	-.01	-.01	-.02
부 의 교 육	.04	.04	.04	-.02	-.02	-.01
모 의 교 육	-.06	-.06	-.06	.00	.00	.00
가 정 수 입 정 도	-.01	-.01	-.01	.5*	.03	.03
부 의 직 업 적 위 세	.04	.04	.04	.01	.00	-.01
갈 등 적 분 위 기	.03	.03	.03	.04	.02	.01
학 업 에 대 한 헌 신	.04*	.04*	.04	-.00	-.01	.01
학 교 부 적 응	.08***	.08***	.08***	.12***	.03	.01
비 행 친 구 접 촉	.19***	.19***	.19***	.24***	.18***	.06*
부 모 폭 력 적 훈 육	.08***	.08***	.08***	.05*	.03	.02

구 분	폭 력 피 해			폭 력 가 해		
	step(1)	step(2)	step(3)	step(1)	step(2)	step(3)
교사 폭력적 훈육	.15***	.15***	.15***	.08***	.05*	.01
폭력문화 선호		-.02	-.02		.07**	.05
공격성		.02	.02		.026***	.25***
폭력허용도		-.01	-.01		.18***	.16***
경비행			-.03			.18***
중비행			.06*			.11***
결정계수(R)	.20	.20	.21	.20	.33	.37

\*p<.05, \*\*p<.01, \*\*\*p<.001 수준에서 유의미.

2단계의 '폭력에 대한 우호적 태도(폭력허용도, 공격성, 폭력문화선호도)'는 피해와 가해를 확연히 구분시켜준다. 폭력에 대한 우호적 태도는 가해를 유발하는 데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만, 피해 여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들 태도요인을 고려해도 피해의 경우에는 결정계수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반면에, 가해의 경우에는 결정계수가 .33으로 크게 증가하고, 앞서 성과 비행친구 변인이 미치던 효과가 실질적으로 감소하며 학교 부적응의 효과가 사라진다. 이는 폭력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이들 변인들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폭력에 대한 우호적 태도는 주변에 비행친구가 많고 학교 부적응을 느끼는 남자 청소년들에게 더 강한 가해성향을 형성하도록 자극한다.

또한 가해의 경우, 태도변인을 고려하면 폭력적 훈육의 효과가 다소 감소하거나 사라진다. 이러한 결과는 훈육과정에서 폭력의 사용이 오히려 아이들의 공격성 및 폭력에 대한 우호적 태도 형성을 유리하게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이는 폭력의 경험이 폭력을 정당화 해주는 규범을 내면화 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공격적 행동이 쉽게 표출될 수 있도록 한다는 "폭력의 학습" 가설을 입증하는 것이다. 실제로 교사와 부모로부터 체벌이나 언어적 폭력을 많이 경험한 학생들일수록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고, 또한 가해경험 역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지점에서 피해와 가해의 특징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가정적 불화, 학교 부적응 등으로 인해 주변에 비행친구들이 많고, 또한 폭력적 훈육을 많이 경험해도, 이러한 처지에서 폭력의 사회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아이들 -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폭력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형성, 발전시키지 못한 아이들 - 이 결국 폭력의 피해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많다. 그 반면에 동일한 생활환경적 처지와 상황 속에서 폭력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활성화시키고 비행적 생활양식을 더욱 강화

시키는 아이들은 폭력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실은 3단계에서 비행경험을 함께 고려해 보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피해에 있어서는 단지 중비행 가담여부가 피해 가능성을 약간 높여 주는 것으로 분석되며, 비행경험을 통제해도 앞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효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는 생활 환경적 요인들이 비행가담과는 별도로 피해여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가해여부에 있어서는 경비행과 중비행 모두 상당히 강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폭력가해 역시 비행의 한 범주, 특히 중비행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간의 강한 상관성은 너무도 당연하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비행경험을 통제하고 나면, 비행친구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교사의 폭력적 훈육 등이 미치던 영향이 사라져 버린다는 점이다. 즉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기 쉬운 아이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폭력적 사회화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격적 심성과 태도를 발전시킨 경우이다.

## 5. 학교폭력의 중층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를 참고로 할 때 피해와 가해가 대체로 비행환경이라는 동일한 토대 속에서 배양되고 발전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상황 속에서 “폭력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잘 발달시키는 경우에는 가해성향이 강화되는 반면에, 이러한 태도형성이 미발달되거나 비행적 행태로까지 발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폭력의 피해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원형적, 논리적, 확률적인 내용으로서, 실제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 주지는 않는다. 한 사건에서의 가해자는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현실과정에서 한 개인을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뚜렷이 규정짓는 것이 때로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실제 조사 결과에서도, 제 변인들의 효과를 모두 통제해도 가해와 피해간의 부분상관관계(partial correlation)는 .08로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를 보여준다.

즉 가정, 학교, 친구, 훈육과정, 태도 등 제 조건을 모두 일정하게 고려해도, 타인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많이 받은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 행동을 하는 경향이 많고, 그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많을수록 역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사실은 피해와 가해간의 인과성은 분명하지 않지만, 이들간에 상호 폭력의 상승작용이 일어난다는 것, 즉 점차 피-가학적 태도가 일상화되어 공격적으로 사회화될 수 있다는 점을 예시해준다.

가해와 피해간의 관계, 특히 그 중층성의 문제에 초점을 둔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집단 유형을 구분해 볼 수 있다.

〈표 4〉 피해 및 가해별 집단유형 구분

가 해 피 해	피 해 없 음	피 해 있 음
가해안함	제 1유형 〈피해-가해없는 집단〉	제 3유형 〈피해집단〉
가 해 함	제 2유형 〈가해집단〉	제 4유형 〈피-가학적 집단〉

조사대상자들을 유형구분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4유형(피가학적 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41%로 가장 많다. 그 다음 제2유형과 제1유형이 각기 22, 21%를 점하고, 제3유형(피해경험만 있는 경우)은 16%로 가장 적다. 이를 성별·학교유형별로 나누어서 보면, 대체로 남학생들은 제4유형에 속하는 비중이 약 55-58%로 절반 이상이나 되고, 제1유형(피해-가해 모두 없는 집단)은 10% 미만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사회의 남자청소년들은 폭력적 행태에 대부분이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이에 비해 여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제1유형이 비율이 높는데, 특히 여고생들의 경우 가해든 피해든 경험하지 않는 비율이 38%로 가장 많다. 여학생들의 경우 제4유형은 약 25% 정도이며, 제2유형 및 제3유형도 대체로 비슷한 비중을 점한다. 성별 집단유형의 분포차이를 보면, 우리사회가 남녀에 따라서 폭력적 사회화의 수위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얼마나 소년들을 공격적으로 사회화시키는지 를 추정할 수 있다.

〈표 5〉 성별·학교유형별 피해-가해 유형분포

구분	남중생	남고생	여중생	여고생	계
제 1유형	39 (8.1)	48 (9.7)	128 (29.4)	189 (37.5)	404 (21.1)
제 2유형	81 (16.8)	96 (19.4)	110 (25.3)	133 (26.4)	420 (21.9)
제 3유형	85 (17.5)	81 (16.4)	86 (19.8)	60 (11.9)	312 (16.3)
제 4유형	277 (57.5)	270 (54.5)	111 (25.5)	122 (24.2)	780 (40.7)
계	482 (100.0)	494 (100.0)	435 (100.0)	504 (100.0)	1916

DF=9 X2=286.47 p<0.001

또한 주목할 만한 중요한 사실은 제4유형(피가학적 집단)에서 피해든 가해든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하다. 제3유형과 피해정도를 비교해 보면, 제3유형의 피해평균은 3.90인데 제4유형은 5.02로서, 피해정도가 제4유형이 훨씬 더 심하다( $t=-3.20, p<.001$ ). 가해정도를 중심으로 보면, 가해만 경험이 있는 제2유형의 경우 평균가해가 6.70인데 반해, 제4유형은 7.43로서 이 역시 제4유형의 가해정도가 더 심하다( $t=-5.27, p<.001$ ). 이렇듯 제4유형이 다른 집단보다 폭력지향성이 훨씬 강하며, 비행성향 또한 더 강하다. 제4유형은 폭력에 우호적 태도 및 비행경험율에 있어서도 다른 세 집단과 뚜렷한 평균차이를 보여준다(〈표 5〉 참조).

〈표 6〉 피해 - 가해집단유형별 폭력적 태도 및 비행의 평균비교

구 분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F	LSD
폭력문화선호도	10.83	13.61	12.25	15.00	86.00***	4/123.2/13.3/1
공격성	10.83	13.28	11.38	14.10	90.32***	4/123.2/13.3/1
공격허용도	9.47	4.81	3.24	5.99	59.31***	4/123.2/13
경비행	2.42	4.81	3.24	5.99	59.31***	4/123.2/13.3/1
중비행	.13	.56	.38	1.09	34.02***	4/123.2/1.3/1

논리적으로 보면, 폭력성 및 비행성은 제2유형 - 제4유형 - 제3유형 - 제1유형의 순으로 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집단별 특성으로는 제4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제1유형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는 피해와 가해의 중층적 특성이 오히려 폭력에 대한 상승작용을 유발한다는 것, 즉 피-가학적 심성이 폭력에 대한 강화를 가져온다는 주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 피해경험은 폭력성 및 비행성을 제어하거나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공격적 사회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2유형(가해집단)과 제3유형(피해집단)은 어쩌면 비행화 과정의 한 단계로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과 대책은 바로 제4유형으로까지 발전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는 조건들과 환경에 대한 통제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판별분석 결과, 제1유형과 제4유형, 그리고 제2유형과 제3유형은 잘 구분되지만, 제1유형과 제3유형, 그리고 제2유형과 제4유형의 구분, 다시 말해 '피해'를 중심으로 한 구분은 그리 분명하지 않다.

즉 폭력의 가해는 비교적 사회화 요인으로 통해서 체계적으로 발생하지만, 피해는 상대적으로 무작위 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대처 및 예방은 피해를 중심으

로 한다기 보다는 “가해” 유발요인, 특히 피해와 가해가 중층적으로 발생하게 만드는 사회적 요인과 계기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더 효과적이다.

## 6.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

학교폭력은 한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초기 아동기 공격행동으로부터 청소년기 폭력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개인적 변수가 많이 작용할 것이 분명하지만 취약하고 부적합한 가정생활, 빈약한 학교적응, 동료들로부터 거부·고립 등의 결합은 초기 요인 모델<sup>1)</sup>에 해당된다.

후기 요인 모델은 학교, 이웃, 선생님과 적대적 관계, 초기 성적 활동에 대한 동료들의 압력, 갱집단의 개입 등과 같은 동료 상황과 같은 가족 밖에서의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웃이나 지역사회 및 경제적 하부구조와 같은 생태적 요인들은 무한한 학습기회를 아동들에게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춘기에 시작되는 후기 공격적 행동은 가족특성에 의해 받는 영향은 비교적 적은 반면 학교에서의 실패, 비합법적 기회구조의 출현, 비행친구들과의 교제, 지역사회 내에서 갱집단을 보상하는 검은 돈과 위신들과 더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아동 초기에 형성된 공격적 행동과 비교해 볼 때 학교, 동료집단, 이웃 등의 다른 많은 체계들과 더 높게 관련된다(Mark, 1996: 347-356).

### 1) 개인적 요인

개인적 차원의 생리, 생물적 요인도 사회적 환경 속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학습할 수 있는 아동들의 능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 개인적 요인에는 뇌손상, 신경병리,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Serotonin), 미네랄,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호르몬 등의 불균형, 낮은 IQ, 불치의 과잉행동, 충동성, 집중력 장애 등이 포함된다(Booth, 1993: 93-117).

이 같은 요인으로 인한 학습의 손상 및 부족으로 인해 아동들은 빈약한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공격적이거나 사회적으로 거부당한 아동들과의 교제, 어린 나이부터 성과 약물남용의 위협에 노출되는 등의 환경에 접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1) 생태발달적 이론에서는 인간의 공격성의 발달 요인을 가정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초기(영, 유아기에서 부터 아동기 전기까지)와 가정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이웃, 동료, 지역사회 등으로부터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후기(아동기 후기부터 청소년기까지)로 구분하고 있다.

## 2) 동료 요인

공격의 형태(Dodge, 1994)에는 반응적 공격과 선제적 공격의 2가지가 있는데, 공격의 형태에 따라 동료들로부터 각기 다른 반응을 얻게 된다.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힘을 사용하고 있다고 인식되는 방어적 공격은 동료들에 의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반대로 선제적 공격은 비 방어적으로 힘을 사용하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간주된다.

선제공격을 하는 아동들은 신체적으로 강압적인 행동이 사회적으로 효과적이라고 믿으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과 강압을 사용하게 된다. 이 중에는 상대를 정당한 이유 없이 괴롭히는 아동들도 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공격성을 사용하는 이상으로 사회적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성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도구적 공격은 동료들로부터 거부당하기 쉽지만 반응적 공격과 상대를 괴롭히기 위한 공격은 초기 학령아동들 사이에 일반화되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동료들로부터 거부당하는 아동들은 그들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들이 조롱 당하고 괴롭히는 대상이 되면 더욱 더 폭력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그들은 싸우는 게 협상하고 타협하고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믿기 때문에 폭력을 휘두르게 되며 이는 소년·소녀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이들은 자신의 공격적 행동으로 인해 동료들의 세련된 사회적 행동을 학습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며 동료집단의 영향력 한계를 벗어난 청소년들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잇따른 문제를 일으키고 위기상황을 증대시키게 된다.

## 3) 가정 요인

어떤 사회적 환경보다도 가족은 인간행동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아동에 대한 일관성 없는 부모의 통제 및 훈육, 모진 체벌, 한계설정의 실패, 사회적 행동에 대한 무시나 보상부족, 부모-아동간 상호작용의 강제성·위압성 등은 가족 내 공격성을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아동들이 공격적 행동을 보일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개입을 하게 된다.

그러나 대개 부모의 개입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아동들을 순종으로 이끌기 위해 위협하고 고함지르고 밀고 때리고 목을 조이곤 한다(Patterson, 1993: 43-87). 이런 식으로 위압적인 아동 양육을 하는 가족의 경우 아동이 지닌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에서 부모로부터 빈약한 문제해결 기술을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결손가정의 증가와 빈곤도 폭력증가의 요인이 된다. 빈곤은 사회적 발달에 필요한 기본자원을 감소시키며 효과적 부모역할과 문제해결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증대시킨다. 빈곤가정은 수입과 같

은 금전 부족에 의한 절대빈곤 가정과 희망하는 문화생활 등을 하지 못함으로써 생겨나는 심리적 요인에 의한 상대적 빈곤가정의 둘로 분류되는데 절대적 빈곤가정보다 상대적 빈곤가정이 자녀들에게 무력감, 열등감, 사회에 대한 반발, 반항심, 공격성, 폭력성 등을 초래하게 할 가능성이 크며, 가정문제를 유발하기 쉽다.

#### 4) 학교 요인

교사의 학습지도실제, 학급운영기술, 교수기술 등은 청소년의 공격행동 발달과 학교와의 유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관련 요인들에 해당된다. 학교풍토와 교수실제 또한 학생들의 교육적 기대, 학교에 대한 합의, 학업성취 및 지역사회 내 행동들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많은 연구들은 보여주고 있다(Hawkins, 1995: 10-18).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수실제는 규칙에 따르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성공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교사는 아동들끼리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필요한 규칙을 수립하고 공부, 과제, 과업집단에서의 성공적인 수행 및 참여에 대한 보상행동들을 포함하여 학업성취에 대해 얼마만큼의 상을 주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학급에서의 생활은 학생들에게 성공을 위한 많은 기회를 주는 사회적 발달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능력과 배경에 대한 인식도 제공한다. 교사의 특정 개인에 대한 편애·편견은 학생들로 하여금 질투심을 느끼게 한다. 또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따돌림을 받는 학생은 고독감을 느껴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어하거나 경쟁상대를 꺾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입시위주의 교육체제, 과대·과밀학급의 교육환경은 교사와 학생간, 학생과 학생간의 인간적인 접촉 및 관계형성에 크게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학교교육 내용이 지식전달에 치중하여 정서·인간교육이 소홀한 것도 학교 내 인간관계의 결핍과 관련된 원인이 되며 입시체제, 교육과정 문제, 과대·과밀 학급에 대한 문제는 학교 내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신뢰관계의 형성을 어렵게 한다.

#### 5) 지역사회적 요인

산업화로 인한 지역사회의 해체를 들 수 있으며, 입시경쟁이라는 사회적 긴장과 좌절감에서 오는 분노와 공격성으로 인해 학교폭력이 유발되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매스미디어에 의한 폭력의 모방과 학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전반에 걸친 유해한 비교육적 지역환경이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다.

### Ⅲ. 결 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과 입장은 다분히 인상적인 수준에서 '가해-피해의 이분화' 도식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가해-피해의 이분화도식' 속에서 공권력을 통해 문제학생과 일반학생을 분리하여 마치 사법처리 대상으로 몰아가는 시도는 일시적인 충격요법은 될 수 있을 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은 가정·학교·사회가 주도가 되고,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지속적·자율적인 모습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와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아니라, 정상적 활동으로 복귀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교사와 학부모가 연대하여 협력 하에 문제를 근원적으로 푸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방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학교폭력에 대한 중재전략이 중요한 것이다. 후속 연구로서 학교폭력의 현실과 대처방안(Ⅱ)에서 이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가 전개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준호 외(1991),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 김준호 외(1992), 「한국의 청소년 비행집단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충청남도청소년상담실(1994), 「청소년과 폭력」, 제1회 심포지움 자료집.
- Groth, A. N. & Field, M. A.(1983), "Rape", Encyclopedia of crime and justice, Vol 40.
- Bartlett, H. M.(1970), The common base of social work practice,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Inc.
- John, H.(1986), "An Ecological Perspective of Social Work Services in Schools".
- June, B. & Marie, W.(1992), Family Practice A curriculum plan for Social Services,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 Booth, A., & Osgood, D. W.(1993), "The influence of testosterone on deviance in adulthood: Assessing and explaining the relationship", Criminology, 31.
- Mark, W. Fraser(1996), "Aggressive Behavior in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An Ecological-Developmental Perspective on Youth Violence", Social Work, Vol. 41, NASW.
- Catalano, R. F., & Hawkins, J. D.(1996), "The Social development model: A theory of antisocial behavior", in Hawkins, J. D.(Ed), Delinquency and crime: Current theories,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ildren's Defense Fund(1995), The state of America's children yearbook, Washington, DC: Author.
- Crick, N. R., & Dodge, K. A.(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
- Dodge, K. A.(1994),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Pepler, D. J. & Rubin, K. H.(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Farrington, D. P.(1991), "Childhood aggression and adult violence: Early precursors

and later-life outcomes", In Pepler, D. J. & Rubin, K. H.(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Hamilton, S. F.(1990), Apprenticeship for adulthood, New york: Free Press.

Hawkins, J. D.(1995), "Controlling crime before it happens: Risk-focused prevention",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Journal, 229.

Henggeler, S. W., Melton, G. B.(1993), "Family preservation using multisystemic treatment: Long-term follow-up to a clinical trial with serious juvenile offende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

Moone, J.(1994), Juvenile Victimization: 1987-1992,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Patterson, G. R., Dishion, T. J., & Chamberlain, P.(1993), "Outcomes and methodological issues relating to treatment of antisocial children", In Giles, T. R.(Ed.), Handbook of effective Psychotherapy, New York: Plenum Press.

中西洋·京極高宣 編著(1990), 「社會福祉士の待遇條件」, 第一法規.

小松源助譯(1978), 「社會福祉實踐の共通基盤」, ミネルヴァ書房.

**<Abstract>**

**A STUDY ABOUT THE CONDITIONS OF SCHOOL  
VIOLENCE AND COUNTERPLANS**

**Kim, Jang-Young · Yang, Jin-Geon**

Causes of violence are related to student's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Therefore teachers must help these students to recognize and control their behavior such as anger, hostility, and violence towards oneself. For example, group studies using anger control can help the disruptive students or their victims control their anger. Other programs such as self-concept reinforcement, effective communication training and human relationship training can give them motivation to work and develop their adaptability, social communication skills, pride and a positive self-image. Through these programs they can also develop fulfilling relationships, overcome restlessness and hopelessness.

School violence tends to happen in close relations with harmful environments in a community. Teachers should identify the harmful environmental conditions in a community and suggest ways to improve campaign for a student's healthy social environment. Furthermore, teacher should lead an action system cooperating with parents, teachers, legal authorities, city hall, provincial and district offices. With the support of the community, they are able to carry on a nation wide campaign against school violence.